만남

2014 4
통권 183호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목 차 ❖

신부님 칼럼	"부활의 삶은 초대입니다"------------------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부자와 라자로의 예화 -------------------------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59~61--	7
가정 교회	아내는 가정의 태양입니다 -----------	10
우리들의 이야기	사순-부활로 건너가는 축복시간---	12
공동체 소식	--	14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17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9
미사안내	--	20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생태 환경과 정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피조물을 보호하고 천연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 병자들의 희망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통과 질병으로 시련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 신 부 님 칼 럼 ❖

2014년 4월 칼럼글

"부활의 삶은 초대입니다"

최종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사순을 마무리하며 부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찬미, 감사드리며 부활의 삶으로 응답을 봉헌합니다.

증오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택하십시오.
울기보다는 웃기를 택하십시오.
파괴하기 보다는 창조를 택하십시오.
포기하기 보다는 견디기로 마음먹으십시오.
흉을 보기보다는 칭찬을 택하십시오.
상처를 입히기 보다는 치료해 주기를 택하십시오.
훔치기 보다는 주도록 하십시오.
미루는 대신에 행동을 택하십시오.
썩는 대신에 성장의 길을 택하십시오.
저주하는 대신에 기도하기를 택하십시오.
죽는 대신에 사는 것을 택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 부자와 라자로의 예화 (루카 16,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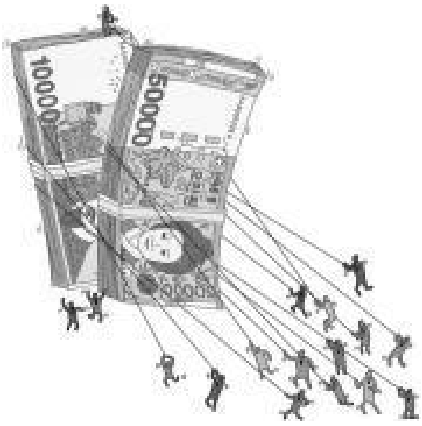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6번 ‘우리는 주의 사랑을’ 1,2절을 부릅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저희의 시야를 넓혀 주위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 주님,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게 하소서

♦ 삶의 이야기 *(진행자)*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부자라는 이유로 외면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발자취와 흔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위에 관심을 가져서 가슴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눕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라자로는 그리스어로 '도움 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이름으로 쓰면 엘사자르 또는 엘리제르가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하느님이 도우신다'(El-azar)는 뜻이 됩니다. 라자로는 도움을 받을 길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죽고 나서 그 상황이 반전됩니다. 한 마디로 반전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드라마가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돌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마음 안에 사시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마음은 현세적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인간은 자신의 소유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사제와의 통교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1,2절을 부릅시다

교리59

성경 길잡이 (28)

신명기계 역사서 - 판관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개척시대는 여호수아의 사망에서 예언자 사무엘의 본격적인 등장에 이르는 대략 150년 동안의 판관시대였습니다.
판관들은 법 전문가들은 아니었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상활에서 구해 낸 영웅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판관기를 지배하는 주된 내용은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은 불행을 가져오고 순종은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신명기계 원칙입니다. 판관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외면하였을 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버리시고...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2,14-15),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뉘우쳤을 때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판관들을 세우셨고... 그 판관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억압하는 자들과 학대하는 자들 앞에서 터져 나오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기 때문이다."(2,18)

판관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한 이교도와 생존을 위해 피 터지게 싸웠던 가혹하고 잔인한 시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판관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 특히 삼손에 관련한 이야기들은 민간전승과 전설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판관기에서는 계략과 암살(3,15-30), 속임수와 살인(3장), 전쟁(6-8장), 반역과 형제 살해(9장), 경솔한 서원(11장), 시민논쟁(12장), 야만행위, 배신행위, 자살행위(13-16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책 전체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인간성과 사람들이 하느님을 외면할 때 당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상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서술의 책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판관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분명히 끔찍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이 최근의 역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곧 하느님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전쟁과 자멸로 끝나고만 그런 20세기 국가들을 통해 반

복되었습니다. 판관기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교리60

성경 길잡이 (29)

신명기계 역사서 - 룻기

룻기는 판관기 다음에 있으며 신명기계 역사서에 속하지 않는 설화체 작품입니다. 룻기는 아마도 역사적 근거가 있는 짧은 이야기로서 사랑, 충실, 헌신의 덕행을 아름답게 가르칩니다. 룻기가 판관기 다음에 놓여 있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전개되기 때문이며 다윗 임금의 증조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함으로서 판관시대와 이스라엘 왕정 시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덕행들에서는 판관들의 타락과 뒤따라오는 책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적 나약성과 대조되는 참신한 기운이 배어나옵니다. 룻기의 문학 형식과 저작 시기에 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느님께서 저자에게 함께 나누라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하느님과 가족에 대한 사랑, 충실, 헌신에 대한 교훈을 배우는 데 반드시 해결할 문제들은 아닙니다.

교리61

성경 길잡이 (30)

신명기계 역사서 - 사무엘기 상.하권

사무엘기 상권과 하권의 명칭은 판관 시대가 끝날 무렵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에 걸쳐 살았던 예언자 사무엘에서 비롯합니다. 이 책들은 계약 궤에 관한 고대의 이야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관한 몇 가지 설화, 권위 있게 쓰인 다윗의 가족사(2사무 9-20장)를 포함해 많은 사료에 근거합니다. 많은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사무엘기 상권과 하권은 기원전 620년경에 이 사료들에서 만들어졌으며 기원전 550년경에 지

금의 형태로 편집되었습니다. 사무엘기 상, 하권은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연이어 기술하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데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 책들은 주로 신명기계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따라서 구세사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들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부모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봉헌되어 어린 나이에 현재 예루살렘의 북쪽 32km 쯤에 있는 실로의 성소에서 살았습니다. 실로의 사제는 엘리라는 사람이었으며 나이가 매우 많아서 그의 사악한 아들들이 성소를 관장하였는데 그들은 특권을 마구 남용하였습니다. 사무엘기 상권에 따르면, 하느님이 엘리의 집안을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하신 것은 그 아들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그 때는 계약 궤가 지파들을 신앙적으로 일치시키는 상징이었던 동시에 자주 일어나는 많은 사건의 요인이었습니다.(1사무 1-7장)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왕정에는 잘못을 얼룩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주제를 찬성하는 파도 있었고 반대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기 상권을 전체적으로 다 읽게 되면 양쪽 상활을 감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울이 기름 부름 받는 것에 대해 갈등을 벌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1사무 8-12장)

사울의 임금으로서의 초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지파들이 함께 협력할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막강한 군대를 양성하여 많은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이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거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심하게 다루었고 심지어 그의 갑옷 시종이며 사위인 다윗까지도 심하게 대해서 다윗은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이 갈릴래아 바다 남서쪽 길보아 산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전투하다 죽을 때까지 팔레스티나 지방을 떠돌아다니는 무장 단체의 수장 노릇을 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비안네 신부

아내는 가정의 태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자체의 태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입니다. 이에 대한 성서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아내의 매력은 남편의 기쁨이며 그의 지식은 남편의 힘이다. 말이 적은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며 교양 있는 아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정숙한 아내는 더 할 바 없는 매력을 갖고 있어 그 정결함은 어떤 저울로도 잴 수가 없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좋은 아내는 주님의 산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가정의 태양입니다. 아내는 그의 관대성과 헌신, 변함없는 봉사의 자세, 그리고 남편과 자녀의 생활에 기쁨을 더해 줄 수 있는, 매사를 늘 살피고 배려하는 자상함으로 인해 태양입니다. 아내는 자기 주위에 빛과 따스함을 두루 퍼뜨립니다. 두 사람이 결합하여 서로가 자기 행복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찾을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라 말하는데 상대방의 행복을 찾는 것은 부부 두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특히 아내의 품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그 마음을 지닌 지혜와 슬기의 산물입니다. 그 마음은 쓰라린 것을 당한다 해도 기쁨을 선사해 주고 수모를 당한다 해도 존경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마치 안개 낀 아침을 기쁘게 하는 동녘의 햇살과 뭉게구름을 금빛으로 장식하면서 저무는 태양과 같습니다.

아내는 또 자신의 시선(視線)이 지니는 맑음과 하는 말의 열성으로 인해 가정의 태양입니다. 그 시선과 말은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그것을 굽히고 더 부드럽게 하며 하는 일이 기술직이든 농업이든 상업이든 공업이든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돌아오는 남편의 마음을 걱정에서 들어 올리고 가족적인 대화 속에서 그를 기쁨으로 다시 부릅니다.

아내는 또 타고난 진실성과 소박한 품격, 크리스천적이고 겸양한 행동, 집중된 정신과 곧바른 마음, 그리고 자태와 의상과 우아함과 수줍으면서도 애정 어린 행동의 미묘한 조화에서 볼 때 가정의 태양입니다. 미소(微

小)한 감정표시, 기쁜 얼굴 표정, 천진스런 침묵과 미소, 그리고 인자함의 표시인 머리의 동작은 아내에게 태양의 색조를 받아 비추기 위해 화판을 열어 주는 특수하고 순박한 꽃의 매력을 가져다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가 자기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애정과 감사의 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박아 주는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 '부부들에게 하신 말씀' 에서)

사순 - 부활로 건너가는 축복시간

정 살로메

부활을 잘 맞이하기 위해 사순기간 그리스도 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통찰하고 회개 하여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영육 간에 신앙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일치 시키도록 오직 하나의 방향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이 평탄 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고 기뻐하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께서 계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하고 생각하며 원망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크게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실수를 하고도 그 상태 에서 머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 한다면 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깊은 절망과 수렁 속에 있다면 화해 의 사순시기 에서 기쁨의 부활로 넘어가는 이 축복의 시간에 진정한 회개 의 눈으로 예수님 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절재 하는 생활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늘 안락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고통 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 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더 징계 하시고 채찍질 하시니 고난은 즉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 이라고도 하고 그런 고통을 커다란 은총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만 가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 하고 성령의 인도에 자신 을 온전히 맡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을 만나게 될 것이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얼마나 주님 에게 목말라 있는 가를 느끼고 보기 시작 합니다. 그 주님께 목말라 있는 것을 느끼고 보기 시작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 했던가를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 이냐시오뿐만 아니라 버나드 로너간은 모든 참된 것을 추구하는 영혼 안 에서 지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회심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심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아 봐야겠습니다.

❖ 4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 리 아 (St. Julia)	김 성 은	24일	보 나 (St. Bona)	이 보 나
11일	젬 마	이 수 빈	25일	마 르 꼬 (St. Mark)	김 희 강 석 진
13일	마르띠노 (St. Martin I)	김 성 일			
16일	베르나뎃따 (St. Bernadet)	김(강)신자 최 성 자 오 옥 수	29일	카타리나 (St. Catherine)	이 화 자 정 혜 경 김 희 진
				카롤리나	김 계 희
			30일	소 피 아 (St. Sophia)	김 주 현 이 명 희

❖ 4월

25일	마 르 코	Markus(O)	30일	비 오	이제명(O)
29일	카타리나 (St. Catharina)	박진경(H)		소 피 아 (St. Sophia)	박영희(B)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4월 17일 ✞현 윤건(토마스)
4월 20일 ✞이 계순(아가다)
4월 24일 ✞김 인숙(헬레나)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3월 2일	3월 9일	3월 16일	3월 23일
계(€)	219.79	169.41	356.82	190.21

❖ 4월 성가번호

4월	입 당	봉 헌	마 침
6일	118	220	125
13일	75	212	125
19일(성야)		129, 217	136
20일	130	132, 215	135
27일	138	210	134

❖ 4월 미사 전례 봉사자 ❖

4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6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이명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아나)	최장용(레오) 이현묵(요셉)	4구역
1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진호(프란치스코) 박주영(비비안나)	1구역
19일	1독서 한말조 3독서 백정선 5독서 김형웅 7독서 최화영 서간 이경규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현묵(요셉) 김진호(프란치스코) 곽케빈(요셉)	
20일	김매자(베로니카) 김애란(세실리아)		상동	2구역
27일	이현묵(요셉) 권오상(마리아)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3구역

❖ 자진헌납금 ❖

2월23일 - 3월23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이공종, 육종인, 강신행, 권지연, 이영희, 박재형, 김용일, 현영애, 박귀동, 한말조, 김형웅, 이수웅, 우동천, 정정숙, 진윤희, 이기열, 이석우, 임정희, 손수희, 이정수, 윤용기, 배성우

구좌입금 : 김대현, 허길조, 김치수, 허두욱, 최종금, 홍경영, 곽케빈, 서유미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4월 17일(목)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주교좌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시간은 차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4월 19(土) 부활성야 미사는 20:00시 만남성당 밑 강당입니다.

3. 4월 20(주일) 부활대축일 미사는 15:00 만남성당 밑 강당입니다. 미사 후에 나눔의 잔치가 있습니다.

4. 5월 2일(금) - 4일(주일)까지 유럽청년대회입니다. 저희 전체 공동체에서는 8명이 참석합니다. 많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3월 8일(토)에 사순 제 1주일 미사로 봉헌 드렸습니다.
2. 3월 15-16일의 함부르크 본당 피정에 교우분들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고 준비해주신 함부르크 공동체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역장모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레지오마리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732 1104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몬		8903264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6310912
			총 무	김 정 자 젬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4년 4월 ❖

일	요일	전 례 일	기관·단체 행사	비 고
1	화			
2	수			
3	목		꾸리아	
4	금		1구역 소공동체	
5	토	청명·식목일		브레멘
6	일	사순 제5주일 한식	사목협의회	
7	월			
8	화			
9	수			
10	목		마리아 요셉회 소공동체	
11	금		2구역 소공동체	
12	토			오스나브뤽
13	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청년 소공동체	
14	월			성주간
15	화			
16	수			
17	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교좌 미사	
18	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15:00 예수 성심 성당 공동전례 3구역 소공동체 없음	
19	토	부활 성야 4·19 혁명 기념일	20:00 성야 미사 – 강당	
20	일	예수 부활 대축일 장애인의 날·곡우	15:00 강당	주일학교 부활행사 부활계란 축복식
21	월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		
22	화	부활 팔일 축제 내 화요일		
23	수	부활 팔일 축제 내 수요일		
24	목	부활 팔일 축제 내 목요일	연령회	
25	금	부활 팔일 축제 내 금요일	4구역 소공동체	
26	토	부활 팔일 축제 내 토요일		
27	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하노버
28	월			
29	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30	수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안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 월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dnamgoong@hanmail.net
		H.P : 0176 3900 7430
	최 영 자 파울라	dada1311@nate.com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소공동체 17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74 2964 504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